

부정극어의 유형론
남 승 호 (서울대학교)

The Typology of Negative Polarity Items
Seungho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영어의 *any, ever* 그리고 한국어의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 NPIs)라 불리는 일단의 어휘들이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을 의미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Fauconnier (1979)와 Ladusaw (1979)에서 시작되는데, Ladusaw (1979)는 영어의 부정극어들이 허용되는 환경을 일반화시켜 '단순감소함수'(monotone decreasing functions)로 해석되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한다. '단순감소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의: Let $\langle A, \leq \rangle$ and $\langle B, \l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f \in [A \rightarrow B]$ is *monotone decreasing* iff for all $a, b \in A$, if $a \leq b$, then $f(b) \leq f(a)$.

예를 들면, 다음 문장들은 영어의 *any* 가 허용되는 세가지 환경들을 보여 주는데, 모두 단순감소함수로 해석되는 것들이다.

- (2) a. *The boy didn't tell us anything about it*
b. *No boy told us anything about it*
c. *At most three boys told us anything about it*

즉 (2a)의 *not* 과 (2b)의 *no boy*, 그리고 (2c)의 *at most three boys* 는 모두 단순감소함수로 해석된다. Ladusaw가 모든 부정극어들의 분포환경을 하나의 의미특성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최근 Zwarts (1990)는 그것을 두 가지 다른 의미특성으로 구분한다. 그는 영어 이외에도 독일어, 네덜란드어에서 보이는 부정극어들의 분포를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

의 부정극어를 구분하고 있다. 그중 첫째 부류는 '약부정극어' (Weak NPIs)라고 불리며, Ladusaw (1979)의 주장과 같이 단순감소함수로 해석되는 표현을 항상 동반해야 한다. (이때, "단순감소함수 표현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부정극어'(Strong NPIs)라고 불리는 두번째 부류는 단지 단순감소함수에 의해서는 허가되지 않고 '반부가함수'(anti-additive functions)라는 더 부정적인 표현에 의해서만 허가를 받는다.

- (3) 정의: Let $\langle A, \leq \rangle$ and $\langle B, \l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f \in [A \rightarrow B]$ is *anti-additive* iff for all $a, b \in A$, if $f(a \vee b) = f(a) \wedge f(b)$.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반부가함수는 단순감소함수보다 더 강한 개념이다. 즉 반부가함수는 모두 단순감소함수이다. 영어의 *no boy* 와 같은 명사구와 부정소 *not* 는 단순감소함수인 동시에 또한 반부가함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At most three boys* 는 단순감소함수이지만 반부가함수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음 예들은 부사 *yet* 를 포함하고 있는데, (4)와 (5)는 그 출현을 허용하지만 (6)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의 *yet* 는 강부정극어로 분류된다.

- (4) *The boy didn't tell us the story yet*
(5) *No boy has told us the story yet*
(6) **At most three boys has told us the story yet*

접속사 *before, if* 등이 단순감소함수로 해석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Ladusaw 1979; Landman 1991; Kadmon & Landman 1993) 하지만 이들은 단순감소함수일 뿐만 아니라 반부가함수로 해석된다. 이것은 다음 문장들간의 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 (7a) *If John goes to Pusan or Kwangju, he buys a souvenir*
 (7b) \leftrightarrow *If John goes to Pusan he buys a souvenir, and if John goes to Kwangju he buys a souvenir.*
 (8a) *Before UCLA plays USC or Stanford they practice a lot*
 (8b) \leftrightarrow *Before UCLA plays USC they practice a lot, and before UCLA plays Stanford they practice a lot.*

국어에서도 접속어미 “-기 전에”와 “-(으)면” 등이 반부가함수로 해석되므로 (다음 예문 (9-10) 참조), 이들 표현들을 가지고 한국어의 강부정극어를 추출할 수 있다.

- (9a) 서울에 가거나 부산에 가면 나는 꼭 친구를 만난다.
 (9b) \leftrightarrow 서울에 가면 나는 꼭 친구를 만나고, 부산에 가면 나는 꼭 친구를 만난다.
 (10a) 철수는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옷을 갈아 입는다.
 (10b) \leftrightarrow 철수는 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옷을 갈아 입고, 그리고 철수는 회사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옷을 갈아 입는다.

본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강부정극어’ 뿐만 아니라 ‘최강부정극어’(Strongest NPIs) 라는 또 다른 유형을 발견하고, Zwarts (1990) 가 제시한 두 유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두 세 가지의 부정극어 유형을 수립한다.

- I. 약부정극어 Weak NPIs: 단순감소함수와 동반한다
 English: *any, ever, etc.*;

Dutch: *hoeven* ‘need’;
 German: *brauchen* ‘need’

- II. 강부정극어 Strong NPIs: 반부가함수와 동반한다
 Korean: 더이상 ‘anymore’, 그렇게 ‘so much’, ‘손가락 하나 까딱하다’ 등의 속어표현;
 Japanese: *soreisyoo* ‘anymore’;
 Dutch: *ook maar iets* ‘anything (at all)’;
 English: *yet*;
 German: *auch nur irgendwas* ‘anything (at all)’

- III. 최강부정극어 Strongest NPIs: 반형태함수와 동반한다
 Korean: 아무도 ‘anybody’, NP-밖에 ‘anyone but NP’, 이제는;
 Japanese: *daremo* ‘anybody’, NP-*sika* ‘anyone but NP’

위에서 보듯이, 최강부정극어의 예로는 한국어의 “아무도”와 “명사구-밖에” 등의 표현과 일본어의 *daremo* 와 명사구-*sika*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반부가함수보다 더 부정적인 환경을 요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정소가 이들의 출현을 허가하므로 그 환경을 ‘반형태함수’(anti-morphic functions) 로 파악한다. 부정소는 보통 보합수(the complement function: 즉, $f(P) = \neg P$)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다음 (11-12)에 정의되어 있는 반형태함수에 포함된다. (반형태함수는 모두 반부가함수이며, 또한 단순감소함수이다. 따라서 이들 세 부류는 차례로 부분집합의 관계를 맺는다.)

- (11) 정의: Let $\langle A, \supseteq \rangle$ and $\langle B, \supset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f \in [A \rightarrow B]$ is anti-multiplicative iff for all $a, b \in A$, $f(a \wedge b) = f(a) \vee f(b)$.

- (12) 정의: Let $\langle A, \supseteq \rangle$ and $\langle B, \supseteq \rangle$ be two Boolean algebras. $f \in [A \rightarrow B]$ is an anti-morphism iff f is anti-additive and anti-multiplicative.

(12)에서 보듯이 반형태함수는 드모르강의 법칙(De Morgan's Laws)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군이다. 다음의 예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최강부정극어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이다.

- (13) a. 아무도 안 왔다.
 b. *Daremo ko-nakatta*
 (14) a. *아무도 오면 나한테 전화해.
 b. **Moshi daremo ki-tara watashi-ni denwa-o kakero*
 (15) a. ??나는 아무도 오기 전에 떠났다.
 b. **Daremo kuru-mae-ni watashi-wa shuppatsu-shita*

한편 본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강부정극어들을 추출함으로써 위의 유형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 예문 (5-6) 참조) 즉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약부정극어와 강부정극어가 나타나 는가 하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강부정극어와 최강부정극어가 나타나는 것이다.

- (16a) 나는 그 책을 더이상 안 읽었어요.
 (16b) *Watashi-wa sono hon-o soreizyoo yom-imasen-deshita*
 (17a) *나는 그 책을 더이상 읽었어요.
 (17b) **Watashi-wa sono hon-o soreizyoo yom-imashita*
 (18a) 그 책을 더이상 안 읽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18b) *Sono hon-o soreizyoo yom-ana-katara watashi-ni kutasai*
 (19a)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가 보세요.
 (19b) *Soreizyoo waruku naru-mae-ni byooin-ni iki-nasai*

References

Fauconnier, G. (1979) 'Implication Reversal in Natural Language,' in F. Guenther and S. Schmidt (eds.) *Formal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ordrecht: D. Reidel.

- Kadmon, N. and F.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4: 353-422.
 Keenan, E. L. and L. M. Faltz (1985) *Boolean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ordrecht: D. Reidel.
 Ladusaw, W. (1979)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Published by Garland Press, New York.
 Nam, S. (1994) 'Another Type of Negative Polarity Item,' in M. Kanazawa and C. Pinon (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Progovac, L. (1988) *A Binding Approach to Polarity Sensitiv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Zwarts,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in S. Busemann (ed.) *Views on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I*. Berlin.